

해방(1945년 8월 15일) 이후와 현재(2021년)의 좌파 충동(衝動)

윤종안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전)한국회계학회 회장

<요약문>

1945년 해방후 처음으로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 좌파들의 세력은 70%가 넘었다. 어디를 가거나 좌익(左翼) 일색인 것만 같았다. 모든 사회행사도 우익(右翼)과 좌익(左翼)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치렀다. 정부 지도하에 보도연맹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표면상의 좌익은 그 세력이 쇠퇴하여갔다.

그러나 보도연맹의 활동이 강화되었다고 하여 좌익의 숫자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지하로 숨어버린 것 뿐이다. 그것은 6·25전쟁 발발(勃發)후 남한 땅을 점령한 점령군인 인민군이 침략하였을 때에 대부분의 보도연맹원들은 자진하여 인민군에게 협조함으로서 그들을 도왔다. 그후 그들은 북조선 인민군에 자진 입대하여 월북하고 말았으며 월북자중 더러는 그 후에 남파교육을 받고 간첩으로 남파되어 왔으나 치안이 안정된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숨을 곳은 없었다. 남파간첩중에서 더러는 자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새 생활을 개척하였으며 그 외의 자들은 생사가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 변절자들의 말로는 비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좌파(左派) 숫자는 29%라고도 하며, 19%로 줄었다는 지상발표도 있었다. 그들은 좌파들이 공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 주제어 : 6·25전쟁,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1. 공산당의 기원

대부분의 좌파들은 칼 맑스(karl Marx, 1820-1883)를 공산당의 원조(元祖)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창시한 사람은 칼 맑스가 아니다, 진정한 공산주의의 기원은 유럽의 비밀조직인 일루미넨트에서 기원한 것이다.

1876년 5월 1일, 독일의 남부 바이엘른에서 비밀결사 조직인 일루미넨트(The illminus Organization)이 설립되었으며, 창시자는 독일의 아담 웨이츠 바프트(Adam Weith Bapt, 1746-1830)이었으며, 그는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강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사유재산 및 상속권을 포기한다, 가정과 혼인 및 윤리도덕을 폐지한다. 모든 종교와 신앙을 폐지하고 새로운 종교로 대체한다. 일루미넨트가 통제하는 독재적이고 이권이나 도덕이 없는 세계정부를 건립한다고 하고 있다.

칼 맑스를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한 이데올로기적 사상가로 만든 저서 공산당 선언은 1847년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으로 맑스와 엥겔스에 의해 집필된 이 서적 공산당 선언은 사회발전의 다양한 단계에서 계속되어온 계급투쟁의 역사는 이제 전체사회를 착취나 억압과 계급투쟁에서 영구히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피억압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가 착취 및 억압계급인 부르조아에게서 해방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선언 하고 있다. 바로 공산당 선언이다.

선언은 제1장에서 부르조아와 프로레타리아, 제2장에서 프로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 제3장에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문헌으로 나타나 있다.

- 1) 반동적 사회주의
 - ① 봉건적 사회주의
 - ② 소시민적 사회주의
 - ③ 독일 사회주의 및 참된사회주의
- 2) 보수적 사회주의, 부르조아 사회주의
- 3) 비판적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2. 돌로 떡을 만들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말은 예수가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를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를 시험하는 말을 한 것이다.¹⁾ 요새 해석으로는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이다.

나는 1980년대 대학교수 재직시에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데모에만 열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안타까워 학생들과 대화를 한 일이 있었다. 그들은 데모를 하는 이유가 사회는 모두 부패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정치권이 모두 썩었다. 그러하니 참신한 세력으로 정권을 대체하지 않고는 부패한 정치권을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대답이었다. 이들이 말하는 참신한 세

1) 마태보국음, 4:1-4.

력은 좌파를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말에 대답을 잃고야 말았다. 혁명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데모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그들은 소위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으나 부패는 근절 되지 않고 여전히 예측가능한 정책이 없으므로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보수파 정권때보다 무엇하나 나아진 것은 없다.

나는 근래에 한경직 목사님이 1947년경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즉, 미군정기에 하신 설교집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외손녀인 이순형에게 부탁하여 동원고의 카피를 얻을수 있었다. 이순형은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를 은퇴하신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수어장대(守御將臺) 바로 아래에 기거하고 계실 때에 목사님의 원고를 정리하는 등 그의 비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어서 자료를 고스란히 갖고 있었다.

나는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좌우익 충돌이 가장 거세었을 당시를 회상하면서 현재의 좌우파들의 갈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소개된 것은 일제 강점기 였으니 대개는 지식인들이나 외국으로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서 맑스(KarlMarx, 1820-1883)의 자본론이나 레닌(Vladimir Lenin, 1870-1924)의 사상서를 자본론을 읽으면서 부터 였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는 기독교 신자의 입장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비판함으로써 동포들에게 참된 사상적 길을 열어주자는 뜻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종교는 사회제도를 초월하는 것인 인간의 영적생활에 관계되는 즉, 인간의 영적생활을 운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종교는 인간의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을 지도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사회사상이라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종교와 사회사상은 서로간에 충돌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상은 그렇지 못하다. 종교도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사상도 그 범위를 넘어서 형이상학적 철학을 배경으로 하면 종교를 곡해해서 무리한 간섭이나 박해를 가하는데서 마찰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공산당의 사회사상인 공산주의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부하린(Nicolay Bukharin, 1888-1938)의 공산주의 ABC에 의하면,

- ① 네 것 내 것 없이 누구나 다 같이 먹고 입고 사는 것
- ② 일은 조금 하고 받기는 넉넉하게 받고
- ③ 교육은 나라에서 시켜주고
- ④ 병이 나면 치료는 무료로 하여주고
- ⑤ 능력대로 일하고 요구에 의하여 받고
- ⑥ 계급을 타파하여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부하린의 말을 관찰해보면, 이것은 유토피아(Utopia)지 공산주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토피아와 공산주의를 혼돈하고 있다.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실현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옛 그리스의 철학이나 성경에서도 이를 찾아 볼수 있다. 구약성서중에 이사야서의 메시아왕국이나 신약성서의 요한개시록중의 천년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또, 있다,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를 보면, 이보다 더 찬란한 유토피아가 있다. 그러므로 유토피아는 인류의 공통된 이상이며 공산주의자 들만의 전용물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토피아라는 이상향이 옳거나 그르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유토피아에 도달하는 길

즉, 방법이 문제인 것이다. 그 도달하는 방법에 진리가 있는 것이다. 그 길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

- ① 기독교의 길
- ② 사회주의자들의 길
- ③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제창하는 길
- ④ 플라톤(Platon, 427-347BC)의 공화국론(Republican)에서 제창하는 길
- ⑤ 공산주의자들의 길

이 중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길을 살펴보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란 말은 모두가 산업혁명 이후 19세기에 생겨난 말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하시엘(Haziel, 1832)이 사회주의(Socialism)란 말을 처음 사용했으며, 같은 해 영국의 사상가 오웬(Owen, 1872-1970)이 공산주의(Comminism)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두 언어는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후에는 사회민주주의, 무정부주의, 집산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등 다양한 사회사상을 나타내는 말들이 생겨났다.

그 원인은 자본주의의 발달로 자본가와 플로레타리아 계급간에 간격이 커짐에 따라서 플로레타리아 계급의 지위를 향상시켜 양자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가 하는데서다. 즉, 소득 5분위 구분에서 최하위 구분과 최상위 구분의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던 중에 독일에서는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 영국에서는 엥겔스(Fredrich Engels, 1820-1895)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여 공산주의의 핵심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공산주의란 마르크스주의를 의미한다.

그러면 마르크스주의는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의 생활철학인 변증법적 유물론(辨證法的唯物論)과 유물사관(唯物史觀)에 의하면, 사회적 변혁은 물리적 생산력의 발전과 소비로 이루어짐을 주장하고 다른 요소는 무시하는 것이다.

그들의 이상은 자본계급을 타파하고 플로레타리아 계급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인데 그 방법은 생산과 소비를 국유화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1980년대에 당시 386운동권에서 활동하다 전향해서 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장로회 신학대학교 모 교수의 강의를 들은 바 있다. 이분은 운동권에서 학습을 할 때에 경험담을 말하는 자리에서 장차 혁명이 완수되어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거리에 즐비한 외제승용차와 재벌그룹에서 해체된 기업들은 우리가 하나씩 찾이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비뚤어진 정신상태에 경악한 바 있다.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생활에서 물질외에는 생각하는 것이 없어 종교, 도덕과 예술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종교관이 피상적인데 우리는 당황하게 된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종교는 자본주의의 결과 생겨난 생활고(生活苦)에서 도피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므로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종교는 노동자로 하여금 곤란한 현실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고, 자본가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없어지고 노동자계급의 생활고가 해결된다면 인간에게 종교는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관은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첫째, 종교가 생활고로 생겨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가 생활고로 허덕이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고가 종교의 원인은 아니다.

종교의 근본은 다음과 같다.

- ① 종교는 인간의 고난주기가 아니며 인간이 행복할 때에도 즐거움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을 예배하게 된다.
- ② 인간은 도덕적인 동물로서 선(善)을 탐구하고 양심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서 신을 예배하게 된다.
- ③ 인간들은 인간문제나 우주의 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서 종교는 생겨난 것이다.

둘째, 인간의 괴로움이 사회상태나 경제상태에서만 있다는 것은 오류이다. 즉, 괴로움이란 자연적으로 오는 것도 있다. 병사(病死)나 천변(天變), 지재(地災) 등이 그것이다. 또한,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죄에서 오는 고통도 있다.

유물론자들은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플로레타리아 대중에게 계급의식을 고취시켜 정권을 획득할 것이라 주장한다. 공산주의 혁명당시 소비에트의 혁명주체는 노동자였고 중국에서의 혁명주체는 농민이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일민족이라도 계급이 다르면 적이요 다른 민족이라도 계급이 같으면 내 편으로 동지(동무)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네 편과 내 편 이분법으로 가르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다. 왜냐하면 역사는 계급투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부상조(相扶相助)와 상호협조(相互協助)하는 현상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큰 틀에서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의 1950년대를 살펴보자. 일제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의 대지주, 자본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이었으며, 그들은 해방과 더불어 재산을 모두 놓아두고 일본으로 쫓겨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가장 신속하게 단행된 것은 농지개혁이었다. 우리나라는 유상몰수(有償沒收)와 유상분배(有償分配)의 원칙에 따라 농지개혁을 실시했으며, 유상분배에서 들어온 돈으로는 6·25전쟁으로 파괴된 학교시설을 복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을 보자 토지개혁은 먼저 외쳤으며 무상몰수(無償沒收), 무상분배(無償分配)라더니 무상분배대상을 농민 개인이 아닌 농민단체를 무상분배의 대상으로 하였으니 농민들에게 돌아간 땅은 없었다. 북한이 지금까지 만년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분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등한히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계급투쟁 운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민족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일 뿐이며 민생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후에는 슬라브족 중심의 민족국가로 회귀하였다. 이는 맑스, 레닌의 공산주의가 실패하였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유물사관을 사회철학으로 하고 계급투쟁을 주창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급투쟁과 혁명으로 정권을 잡는다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독재를 하게 되고, 계급없는 사회에 도달하기까지 무자비한 투쟁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세력인 자본계급이나 지식계급을 적폐(積幣)로 몰아 숙청(肅淸)을 하고 봉건제도의 잔재인 종교와 도덕을 없애고 생산과 소비는 국유로 하여 플로레타리아 계급의 지위를 향상 시키겠다는 것이다.

부하린은 공산주의 ABC에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품은 없어지고 생산물뿐이며 이는 매매나 교환이 되지 않고 창고에 넣어두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준다. 이 때문에 화폐(貨幣)도 무용지물이 되고 공산주의의 꿈같은 세상이 전개된다고 하였다. 돈은 쓸곳도 없다. 소비자가 필요한대로 무상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회다. 이때에는 자본가

계급이 일으키는 전쟁도 있을 수 없고 맹렬한 생존경쟁도 없는 사회, 이것이 참 좋은 유토피아가 아니고 무엇이냐 모두가 동경하는 사회가 아닌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토피아가 지속되려면 정권과 경제권을 한 손에 쥔 강력하고 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못하면 지배자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독재는 계속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에서 자유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이 없다고 하나 이러한 말은 사실과 다르다. 치자(治者)계급과 피치자(被治者)계급, 공산당원과 인민이 그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독재는 과도기일 뿐이며, 혁명이 완수되면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맑스주의 사회에서는 독재는 언제나 계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혁명은 언제나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는 소유욕이 남아있어 일은 적게하고도 많이 소유하려 할 것이다. 이 소유욕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독재는 필요하다. 그리고 독재자들은 한번 잡은 권력은 놓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권력은 장기간 잡고 있으면 부패한다. 그것은 권력의 부패하기 쉬운 속성 때문이다.

루소(Rousseau, 1712-1778)는 부패를 척결하려면 혁명이 필요하고, 혁명후에는 반드시 독재가 따라 다닌다고 하였다. 그래서 맑스주의는 존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도덕이나 사람의 인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성경의 도덕은 봉건시대의 도덕이라고 하고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으니 성경의 십계명중 제8계명(도둑질 하지 말라)와 10계명(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 남종과 여종, 소, 나귀 등의 소유물)도 쓸모가 없어진다. 어느 것이나 가져와도 도둑질이 아니다.

또한, 가족제도도 봉건시대의 유물이니 새로운 시대에서는 정조(貞操)라는 거추장스러운 관념을 버리고 자유로운 성생활을 향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레닌도 아이를 키우는 것과 일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3일마다 한 번씩 아내를 바꾸어도 상관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성경의 제7계명(간음하지 말라)은 소용이 없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맑스, 레닌주의에 매혹되는 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 하는 욕심 때문이다. 즉, 부당한 방법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기 위하여 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긴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의 성추문사건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의 서두에서 한 괴물이 유럽을 횡행하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라는 괴물이다. 저들의 말대로 공산주의야 말로 일대 괴물이다. 이 괴물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사상적 공백기와 1980년대의 자유화 물결 이후의 사상적 혼란기를 틈타서 우리 대한민국을 덤치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 괴물을 퇴치할자 누구인가? 바로 대한민국의 5,200만 자유시민 이다. 총궐기하여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더불어 이 지구상에서 용도 폐기된 맑스주의의 재현을 막아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켜 낼 수 있다.

3. 분단 한국(38선과 휴전선)

1945년 5월 5일, 독일은 연합군에게 항복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전선에서 독일과 태평양전선에서 일본과 싸움을 병행하는 미국의 고민은 깊었다.

가장 전력이 막강하다는 일본의 관동군 강력하다는 일본의 관동군(關東軍)과의 전투가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항복을 받기는 앞으로 1년 반은 걸린다는 예측이고 이로 인한 미군의 희생자는 10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강력하다는 일본의 관동군이 문제이었다. 그래서 유럽전쟁을 끝내고 느긋하게 있는 소련에게 일본과 개전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5일에 독일이 항복을 하고 8월 6일에는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그 위력을 과시했고, 같은 해 8월 9일에는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에 두 번째로 투하하여 일본의 전의를 꺾어 놓았다.

같은 날인 8월 9일 0시에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같은 날 함경북도 웅기에 폭격을 개시하였다. 소련의 남하를 보면서 미국은 고민이 생겼다. 전쟁은 미국이 다 해놓고 소련이 한국을 다 점령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소련의 남하를 막으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입장에서 소련군의 남하를 막는 역할을 한 사람은 후에 국무장관을 역임한 딘 러스크(David Dean Rusk, 1909-1994)와 1964년에 연합군 사령관과 미8군 사령관을 역임한 찰스 본스틸(Charls Bonesteal) 대장이다. 이들은 소련군에게 북위 38도선까지만 남하하도록 요청하여 더 이상 남하하지 않도록 요청을 하고 소련군은 이를 수락하고, 1945년 8월 24일까지 38도선 이북의 북한지역을 전부 점령하였다.

한편,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에 겁을 먹은 일본은 동년 8월15일 연합군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미군들은 그들이 주둔하고 있던 오키나와를 8월 19일에 출발하여 9월 8일에 인천항에 첫 도착하였다.

그 후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북한에는 1948년 9월 9일에 김일성을 수령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 2년후인 1850년 6월 25일에는 이날이 일요일이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에 북한군이 38도선 전전선에서 소련제 탱크를 압세워 남쪽으로 침입하여와 6·25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전쟁은 그후 3년 여동안 밀고 밀리고 하다가 1953년 7월 23일에 정전협정이 현재 점령하고 있는 전선을 기준으로 상호 2km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를 구축하고 성립된 선이 휴전선이다.

휴전선은 38선보다 서부전선쪽의 개성을 잃고, 동부전선에서는 속초를 얻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남한이 조금 넓어진 셈이다.

4. 남북한의 국력 비교

정전후의 남한과 북한의 국력을 비교하면, 국토의 넓이는 북한이 12만km²인데 비하여 남한은 99,320km²로 북한이 좀 넓으며 인구는 북한이 2,560만 명인데 비하여 남한은 5,164만 명으로 남한이 북한의 약 2배가 된다. 농경지는 북한이 200만ha인데 비하여 남한은 203만ha로서 남한이 북한보다 좀 넓다.

국민총생산이 북은 2,800억 원인데 비하여 남한은 15,400억 원으로 남한이 북한의 약 55배이다. 경제력은 구매력 기준으로 국민소득은 북한이 \$1,800이고 남한은 \$39,500이며, 남한이 북한의 32배이다.

전기는 남한이 100% 보급 사용하는데 반하여 북한은 인구 2,600만 명 인구중 900만 명만

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25%만이 사용하는 셈이다. 곡물 재배 면적은 북한이 148,5ha인데 반하여 남한은 140ha로서 북한이 좀 넓다. 또, 남한은 식량의 자급율이 25%이며, 북한은 자급율이 더 낮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모두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자라는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국이어야 하며, 패쇄국가로는 생존하기가 어렵다.

5. 결 론

1945년 해방후 처음으로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 좌파들의 세력은 70%가 넘었다. 어디를 가거나 좌익(左翼) 일색인 것만 같았다, 모든 사회행사도 우익(右翼)과 좌익(左翼)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치렀다. 그 한 가지 예가 1946년 8월 15일 해방 1주년 경축행사 였다. 우익은 남산에서 였고, 좌익은 서울운동장(동대문 축구장)에서 동시에 치러 그 세를 과시(誇示)하였다. 그 때는 미군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어 모든 공적기관(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미군이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좌익세력의 발효(醱酵)는 막을 길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정부가 수립되고 정부나 우익사회단체(서북청년단이나 대한청년단 등) 등이 조직의 힘을 발휘하면서부터 우익의 숫자는 늘어나고 좌익의 세는 꺾이여 힘이 약해졌다. 정부 지도하에 보도연맹(報道聯盟, 좌익가담자들의 轉向者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표면상의 좌익은 그 세력이 쇠퇴하여갔다.

그러나 보도연맹의 활동이 강화되었다고 하여 좌익의 숫자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지하로 숨어버린 것 뿐이다. 그것은 6·25전쟁 발발(勃發)후 남한 땅을 점령한 점령군인 인민군이 침략하였을 때에 대부분의 보도연맹원들은 자진하여 인민군에게 협조함으로써 그들을 도왔다. 그후 그들은 북조선 인민군에 자진 입대하여 월북하고 말았으며 월북자중 더러는 그 후에 남파교육을 받고 간첩으로 남파되어 왔으나 치안이 안정된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숨을 곳은 없었다. 남파간첩중에서 더러는 자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새 생활을 개척하였으며 그 외의 자들은 생사가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 변절자들의 말로는 비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좌파(左派) 숫자는 29%라고도 하며, 19%로 줄었다는 지상발표도 있었다. 그들은 좌파들이 공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 필자 약력

- 공인회계사, 경영학 박사
- 동국대학교 경상대학장, 경영대학원장 역임
- 한국세무학회 회장 역임
- 한국회계학회 회장 역임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대한주택공사 사외이사 역임
- 증권감독원 감리위원회 위원 역임